

‘한낮 잡초에서 희망의 꽃으로 활짝’

산과 들에 자생하고 있었으나 그 누구도 관심조차 주지 않았던 한낱 잡초에 불과했던 토종 자생 영경귀를 국내 최초로 재배에 성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 농업의 미래 비전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임실생약영농조합법인, 국내 최초 재배 성공 표준 재배법 정립 단지 육성... 농업 대안 가능성 생태계 변화로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 멸종위기에 이를 되살리고자 연구를 시작한 것이 재배 동기 지난 9일부터 한달간 농장 개방... 관광객 줄이어 올해에는 시화전 전시·사진 콘테스트 등 진행

영 경귀의 효능

어혈을 풀어주는 작용으로 피를 맑게 해줘 혈액순환·고혈압·알콜성 간 손상에 큰 효과 전통적으로 신경통·관절염에도 매우 유익 채장세포 보호·혈당 강화 작용기전 밝혀져

영 경귀는 무분별한 채취와 자생지 생태계의 변화로 개체수가 급격하게 격감되고 있는 멸종위기의 자생식물이다.

이에 임실군 오수면에 자리 잡은 임실생약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심재석)에 의해 국내 최초로 재배에 성공하였고 영경귀의 표준 재배법을 정립하여 재배단지를 조성 육성함으로써 사라져 가는 우리 주변의 전통적 자원 식물이 농업의 새로운 대안적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임실영경귀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임실생약영농조합의 심재석 대표는 1981년부터 37년 동안 오로지 약용식물과 함께 살아온 우리나라에서 몇몇되지 않는 생약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생 영경귀가 옛날부터 산과 들에 널리 퍼져있었으나 그 귀중한 가치를 모른 채 소홀히 한 상태에서 멸종위기에 처하자 이를 되살리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심재석 대표는 재배 성공뿐만 아니라 세밀한 연구를 통하여 영경귀의 생육과정에서 대사성 물질들이 생성되고 증강되고 소멸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에 따라 영경귀의 부위별 채취시기에 따라서 기능성 성분 및 효과 효능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현상을 규명함으로써 영경귀의 활용 용도별 이용 부위의 원료 표준화를 이에 국내 최초로 정립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임실영경귀는 그간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어혈을 풀어주는 작용으로 피를 맑게 하여 주고 혈액순환과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은 물론이고 간 기능 보호와 특히 알콜성 간 손상에 매우 효과적인 결과가 밝혀졌고 전통적으로 신경통과 관절염에도 매우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우 특징적으로 영경귀 성분 중에 채장세포를 보호하고 혈당을 강하시키는 작용기전이 밝혀짐에 따라서 향후 당뇨병 치료 연구에도 도전할 예정이다.

현재에는 임실군에서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으로 여성갱년기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연구와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에서 퇴행성관절염 건강기능식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등 임실영경귀의 우수한 효능을 밝혀내는 연구 활동도 활발하게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임실영경귀는 액상차, 환, 크림, 효소, 식초 등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되어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영경귀가 어혈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작용을 기전으로 50대 이후에 주로 발생하는 남성들의 정수리 탈모증상인 미관성 탈모에 매우 효과적인 제품으로 영경귀 꽃 헤어컨디셔너를 개발하여 특허 출원하였고 제품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또한 한국 영경귀는 품종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음으로 임실생약 영농조합에서는 전북 농업기술원 약용자원연구소와 공동으로 3년 전부터 한국 영경귀 표준품종 연구와 더불어 우수한 품종을 선발하는 육종연구도 병행하여 실행하고 있음으로 약 4~5년쯤 후에는 임실영경귀라는 새로운 품종도 등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임실생약영농조합에서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700번지 일원에 조성

한 영경귀 재배단지에서는 올해 3년째로 보라색 영경귀 꽃이 피는 시기인 5월 9일부터 한달동안 영경귀 농장을 개방하고 있는데 이미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영경귀 체험관광객 예약이 줄을 잇고있는 상태로서 아름다운 보라색 영경귀 꽃을 사진과 그림으로 담기 위하여 수많은 작가들과 더불어 약 3,000여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올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페이스북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공모한 34편의 영경귀를 주제로 한 시화전이 영경귀 농장에 전시되어 있고 영경귀 농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임실영경귀 카페(임실영경귀cafe.naver.com/koreanthistle) 올려주면 우수 작품들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임실영경귀 사진 콘테스트도 진행되고 있으며 영경귀를 활용한 영경귀 효소와 식초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심재석 대표는 농촌진흥청 현장 명예연구관으로서 전북 약초동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대한민국최고 농업기술명인(35호)이며 한국신지식 농업인(197호)인 약용작물 해독에 쓸 수 있는 극히 희귀한 식물을 발굴하여 세계 최초로 자생지 복원과 개체 증식연구 및 재배실험을 하고 있는 등 몇 종의 미래 유망 약용자원식물도 함께 연구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